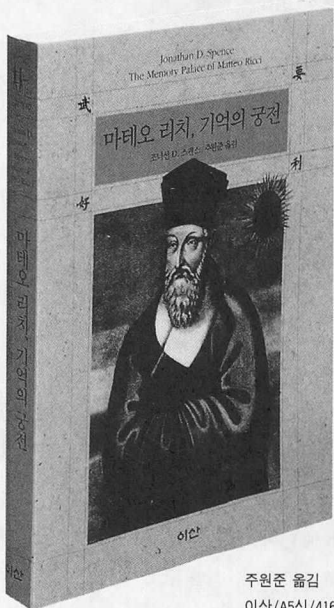


소설 못지 않은 상상세계의 역사이해

조너선 D. 스펠스 《마테오 리치, 기억의 궁전》을 읽고

김기협 | 중앙일보 문화전문위원



주원준 옮김
이산/A5신/416면/13,000원

말이나 글이 몹시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그거 중국어야?(That’s Chinese to me?)” 하는 농담을 서양사람들은 한다. 표음문자인 서양말과 달리 표의문자인 한문은 아직도 서양인들에게 신비스러운 존재다. 중국어를 읽고 말할 수 있는 중국학 연구자들은 꽤 많아졌지만 유려한 한문 문장을 지어낼 수 있는 서양인은 손꼽을 정도다.

‘인간’ 리치의 모습 보여줘

한문으로 책을 펴낸 최초의 서양인은 이탈리아의 마테오 리치(중국어명: 利瑪竇, 1552~1610)였다. 1583년 중국에 입국, 죽을 때까지 27년간 가톨릭 선교사업에 종사한 리치는 서적편찬을 중요한 선교수단으로 인식하고 수많은 책을 만들었다. 최근 번역 출간된 《천주실의》(서울대출판부)를 비롯해 기독교 교리를 소개하는 책들과 유클리드의 저술을 번역한 《기하원본(幾何原本)》 등 서양과학을 소개하는 책들이 그 가운데 들어 있다. 한문저술의 양과 질에서 리치를 능가한 서양인은 그후에도 거의 없었다.

4백년 전 리치가 활동한 시기는 유럽과 중국 사이에 접촉이 거의 없을 때였다. 리치에 앞서 중국을 널리 살펴본 유럽인으로는 3백년 전에 역시 이탈리아인인 마르코 폴로가 있었지만, 폴로가 ‘카테이(Cathay)’라 부른 나라가 바로 중

국이라는 사실조차도 리치의 동료들에 의해 비로소 밝혀질 정도로 중국은 유럽인들에게 멀고 도 먼 나라였다.

중국에 들어가기 불과 몇 달 전에야 중국어 공부를 시작한 리치가 20여년의 체류기간 동안 중국의 1급 학자들에게 손색 없는 저작을 남겼다는 사실, 또 그 저작 속에 중국문명에 대한 놀라우리만큼 깊은 이해가 담겨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의 연구자들에게까지도 하나의 불가사의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또한 서세동점(西勢東漸)의 흐름 속에서 유럽우월주의에 빠지지 않고 동서문명의 화합을 제창한 리치의 적응주의(accommodationism) 선교노선 역시 교섭사 연구자들의 경탄을 자아내온 또 하나의 수수께끼다.

수수께끼에 둘러싸인 신화적 인물 마테오 리치의 실체를 밝히는 데 조너선 스펠스만한 적임자가 이 시대에 따로 없을 것이다. 《왕여인의 죽음》(이화여대출판부), 《후씨의 의문》(미번역) 등의 작품에서 보듯 예일대 역사학교수 스펠스는 역사학과 문학의 경계선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특이한 연구자다. 그가 마테오 리치의 내면에 스며들 듯 찾아들이가 ‘영웅 리치’도 아닌, ‘성인 리치’도 아닌, ‘인간 리치’의 모습을 그려 보여준 작품이 《마테오 리치, 기억의 궁전》이다.

연상작용을 통한 기억술

스펠스에게 제일 중요한 열쇠는 두가지 자료였다. 그 하나는 1596년 서양의 기억술을 소개함으로써 중국 지식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은 책 《서국기법(西國記法)》이고 또 하나는 1606년 당대의 박물가(博物家) 청다웨이(程大猷)의 부탁으

로 서화집 《정씨묵원(程氏墨苑)》에 넣도록 제공한 성화 네 폭이다.

《서국기법》은 기억할 사물들을 상상 속의 공간 안에 있는 특정한 장소와 연결시킴으로써 연상작용의 도움을 받는 그리스 이래의 기억술을 설명한 책이다. 그 작동방법을 예시하기 위해 리치는 몇 개의 이미지를 내놓았다. 또 《정씨묵원》에 서양화의 샘플을 제공해달라는 청다웨이의 부탁에 리치는 네 폭의 그림을 골라주었다. 리치가 이 이미지들과 그림들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리치의 의식과 무의식을 아울러 더듬어 가는 것이 스펠스의 실마리다.

발랄한 상상력으로 역사 조영

리치의 내면세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그 외면세계를 파악하는 것이 전제다. 리치가 초년을 보낸 16세기 중엽의 이탈리아와 만년을 보낸 16세기 말~17세기초의 중국상황을 폭넓고도 깊이있게 그려주는 것부터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스펠스의 장이다. 전쟁·고통·종교·문화·인간에 대해 리치가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상황배경 위에서 고개를 끄덕일 만한 해석이 얻어질 수 있다.

스펠스가 밝혀낸 사실과 끌어낸 해석은 학술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가진다.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가치들이 이 책에는 들어 있다. 역사학도들에게는 역사학의 탐구가 이처럼 자유분방하고도 능동적인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는 깨우침을 주며, 일반독자에게는 소설 책 못지 않은 발랄한 상상력의 세계 속에서 역사의 이해에 도움을 주는 책이다. ●